

국산 세탁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탁 실태조사 및 실험연구(I) — 설문지와 일기법 조사 —

유 혜 경 · 오 경 화* · 조 용 진*

시립인천대학교 의생활학과, *중앙대학교 가정교육학과

Integrative Approach for Improving Washing Machines (I) — Survey and Diary Method —

Haekyung L. Yu · Kyungwha Oh* · Yongjin Ch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University of Inche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 Ang University

(1996. 7. 15 접수)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purchase and use behavior of consumers related to washing machines in order to develop strategies to increase competitiveness of washing machines manufactured in Korea. Purchase and use behavior related to washing machines were examined by survey method and detailed information on washing conditions and usage of washing machines were obtained by diary method. 398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in the survey and 35 housewives participated in keeping the records of their washings for 30 day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price and a tangle of clothes were the most determinant factors for purchase of washing machines and the knowledge related to washing was relatively low. The diary method revealed that washing loads and frequencies of washing increase with the household size, and functions of washing machines except water level are infrequently used. Comparisons between the survey and diary results indicated that consistency between the two methods depends on the types of questions.

I. 서 론

1980년 초기까지도 재래식 손세탁 방법이 선호되고

*본 논문은 1995년도 산학협동재단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세탁기의 보급이 미미했던 우리나라는, 1980년 후반부터 특히 올림픽 이후로 세탁기의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3년에는 세탁기 보급률이 86%에 달하였고 2~3년 내로는 선진국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김성련, 1992; 강운석, 1995), 초기에 2조식 반자동 세탁기가 많이 판매되었으나, 1993년에는 판매

되는 세탁기 중 전자동 세탁기가 85%를 차지하였다(강윤석, 1995).

국내 세탁기 시장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세탁기가 보급되어 있다. 대부분 국산 세탁기의 경우에는 와류식으로 세탁조 밑에 있는 원반을 돌려서 강한 물의 흐름을 일으키어 세탁을 하는 방식이다. 와류식 세탁기는 세탁이 잘되나 세탁물이 손상되기 쉽고 세탁물이 쉽게 엉키는 단점이 있다. 미국식 세탁기로 대변되는 교반식 세탁기는 세탁조 안에 봉이 있어서 봉이 규칙적으로 방향이 반전되며 휘저어 준다. 세탁물의 손상이 적으나 구조가 복잡한 편이다. 마지막으로 유럽형인 회전드럼식 세탁기는 세탁과 빨래를 삶을 수 있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편리하고, 세탁 효과와 세탁물 손상 등에 있어서 다른 기종보다 우수하나, 값이 비싸고 세탁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부피가 큰 빨래를 하기가 힘들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이불빨래와 같은 부피 큰 빨래를 할 수 있는 와류식 국산 세탁기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가족수가 감소하고 세탁기를 다용도 실과 같은 외부에 놓기보다는 실내(부엌)에 설치하기를 원하여, 소음이 적고 부피가 적은 회전드럼식 세탁기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던 교반식 세탁기도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어서 국내 세탁기 시장은 더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농축세제와 액체 세제 또 유연제 및 표백제들이 여러 종류가 개발 보급되고, 환경 문제와 환경 인식에 관하여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국산 세탁기 생산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78개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다.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동 등 주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 수출되고 있는데 수출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동아일보, 1995. 4. 9). 특히, 앞으로의 수출은 개발도상국으로 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선진국형 즉 소비자 지향적인 세탁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국산 세탁기들은 세탁기내에서의 기계적 작동에 변화를 줌으로써 세척 효과 상승, 헹굼성의 향상, 세탁물 엉김 등에 의한 손상 방지, 의류 소재에 따른 세탁 코스의 조절 등 다기능성을 꾀하고

있으며 이불, 담요 등의 부피가 큰 세탁물의 세탁이 용이하도록 대형용량 세탁기를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개발에 따른 소비자의 세탁기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과연 이런 다기능 세탁기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혹은 소비자 교육, 홍보는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최근 소비자의 제품 사용행동을 설문지법과 일기법(diary method)으로 측정 한 결과는(Park, Yu & Park, 1995), 소비자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소비효율성과 실측된 소비효율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사회적 규범에 부응하려는 무의식적인 압박이 존재하는 경우 설문지에 의한 응답은 왜곡되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한 달 동안의 식품, 의류, 가전제품의 사용을 기록한 28세대의 자료에서는 그 세대들이 한가지부터 여덟까지의 기능이 있는 세탁기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8세대만이 기능을 한가지라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세대들은 기능을 한 곳에 맞추어 놓은 채 계속 세탁을 하여서 다른 기능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기능성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국산 세탁기 업체의 전략이 효과적이냐 하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세탁기 사용 실태를 심층 조사하고 이에 따른 실험연구를 시행하여 세탁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비자 만족/불만족 요인을 밝힘으로써, 소비자 지향적인 세탁기를 개발하여 국산 세탁기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Part I은 설문지법에 의한 조사로 소비자들이 세탁기 보유상황, 구매상황, 세탁방법, 세탁기 사용, 만족·불만족 사항을 살펴보았다. Part II는 일기법에 의거하여 세탁의 구체적인 사항들 즉, 세탁량, 세제사용, 세탁액의 온도, 세탁횟수 등을 구하였다. Part III는 Part I과 Part II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험조건을 선정하고, 여러 기종의 세탁기를 이용하여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도표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이 논문은 연구 중 설문지 조사와 일기법 조사의 결과를 다루고 있으며, 실험연구의 결과는 후속 논문에서 발표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산세탁기의 경쟁력을 고양시켜 우리나라

산업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 교육에도 보탬이 되리라고 기대된다. 또한 학문적으로는 다학제적 접근방식을 통한 연구로 세탁기라는 가전제품과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사용행동을 총체적으로 살핌으로써 의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실용 연구의 일례가 될 것이다.

II. 선행 연구

그 동안의 세탁 연구는 주로 세제를 중심을 이루어져 왔으며, 세탁기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세탁기에 관한 연구로는 세탁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80년대 초에 세탁기사용을 포함한 세탁실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권수애, 1980; 김병미, 1984; 이정우, 최동숙, 1983), 최근에는 주로 구매와 세탁기 사용상황을 검토하여 세탁기의 디자인적 측면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조경아(1993)는 가사노동의 대체도구로써 한국형세탁기는 삶는 세탁과 애벌빨래가 가능하여야 하며, 대형화 추세로 인한 설치의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우성(1990)은 가사노동의 합리화를 위한 연구에서 주부가 세탁에 소요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탁에서 건조까지의 전 작업을 한 장소에서 해결하는 home laundry system을 제안하였다. 세탁시 동선의 이동이 많아서 무거운 빨래를 들고 여러 공간을 이동하는 문제점은 김선희(1995)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

최미선(1994)과 오성진(1993)은 각각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학력과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오성진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세탁기에 대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기능, 용량, 생산회사, A/S 라고 보고하였고, 최미선은 품질, 기능, 가격의 순으로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차옥선과 이일심(1994)은 세탁실태를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고, 30세대에 내외와 세제를 공급하여 착용과 세탁에 따라서 의류에 축적되는 잔류 오염과 백색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세탁빈도는 소득과 주부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며 냉온수사용은 주거형태와 연관이 있어서,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는 75%가 온수를 사용하여 세탁을 하나, 단독주택인 경우는 57%만이 온수로 세탁한다고 하였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설문내용이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르고 또한 구체적인 정보불 제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세탁실태를 파악하거나 세탁기 개발에 도움을 주는 데는 미흡하였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이 설문지에 응답하는 인지된 사용행동과 실제 행동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설문지법에만 의존하지 않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세탁 무게, 세탁 온도 등 세탁기 개발 및 세탁 연구에 기초적이고 중요한 정보는 설문지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접근 방식에 의한 연구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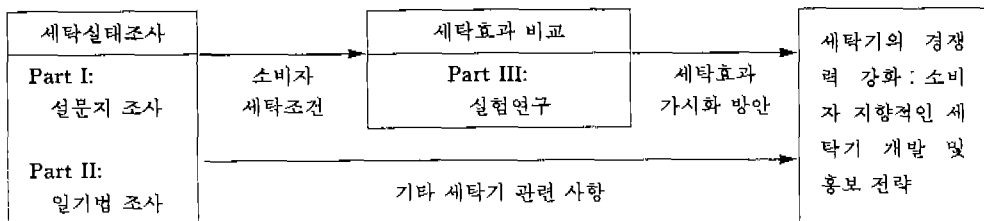
III. 연구 방법

1. 설문지법

1) 설문지 개발

세탁에 관한 설문지의 내용은 최미선(1994), 조경아(1992), 김선희(1995), 오성진(1993), 박우성(1990)의 연구를 참조로 하여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산업체 전문가 2명과 연구자들간의 두차례 회의를 거쳐서 내용과 형식을 구체화하였다. 그 결과 세탁기 구매, 세탁기 소유 상황, 세탁습관, 세탁기 만족도, 세탁 지식, 소비자 특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구성되었다.

세탁기 구매상황에 관한 문항은 가격, 세탁력, 디자



[그림 1] 연구 내용의 요약

인 등의 세탁기 특징이 세탁기 구매결정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는 10 항목이 포함하였다. 응답자들은 또한 이 10개 특성에서 시판되는 세탁기들이 얼마나 차별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중요도와 차별성은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중요도와 차별성 점수는 구매결정지수(determinance score)를 계산하는데 사용되었다. 구매결정지수란 결정속성(determinant attribute)과 연관된 개념으로 Myers와 Alpert (1968)는 소비자의 구매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도가 아니라, 중요도와 선택가능한 대안들간의 차별성과의 복합함수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항공사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안전도일지라도, 소비자가 대부분 항공사의 안전도가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정요인은 안전도가 아닌 가격과 같은 다른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결정속성(determinant attribute)과 결정지수(determinance score) 개념을 주장하였는데, 이들의 이론에 따라서 구매결정지수는 중요도와 차별성을 곱한 점수로 산출되었고 구매결정지수의 값이 높을수록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세탁지식은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3명의 전문가에 의해 안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설문지는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실시하여 수정되었는데, 예비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옳은 답을 하지 못한 세탁지식에 관한 한 문항을 다른 문항으로 대체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1995년 9월 중 서울 및 주변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41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이 많은 16부를 제외하고 398명의 응답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표집된 대상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20대가 36.1%, 30대가 27.0%, 40대가 22.2%, 50대가 12.1%, 60세 이상이 2.5%였고, 중졸 이하의 학력자가 12.9%, 고등학교 졸업자가 34.0%, 전문대 또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가 53.1%를 차지하였다. 취업여성이 44.4%였으며, 가계 한달 평균 수입은 150만원 이하가 36.1%, 150~210만원이 27.9%, 210~300만원이 23.5%,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12.5%였다.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41.5%, 단독주택이 33.1%, 연립주택 등의 기타 주거형태가 26.4%였으며, 주거지역은 서울의 강북지역이 42.0%, 강남

27.2%, 수도권 30.3%를 차지하였다. 보유하고 있는 세탁기 상표의 분포는 그 동안 알려진 국내 가전 3사(금성, 대우, 삼성)와 기타 가전 회사, 수입 세탁기의 시장점유율과 유사하였다.

2. 일기법

1) 측정도구

일기장은 세탁실태 기초조사 부분과 30일간 세탁사항을 기록하는 일기부분으로 나뉘어서 구성되었다. 기초조사 부분에는 세탁기 종류, 용량, 위치, 세탁기가 위치한 바닥의 종류 및 상태, 세제 종류와 사용 방법, 주로 사용하는 세탁 기능과 세탁 방법, 세탁기에 따른 세탁, 행균, 탈수 사이클의 시간과 횟수, 가족 구성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일기부분에서는 세탁무게, 세탁물 종류, 세제량, 세탁수 온도를 기록하고 기타 세탁에 관한 사항들은(세제 투여 방법, 세탁 코스, 수위 선택, 추가 세탁, 행균, 탈수 횟수) 기초조사에서 밝힌 방법과 다를 경우에만 기록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일기장으로 5명의 주부가 1주일간 세탁실태를 기록하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기초조사 형식과 일기 형식을 수정, 보완하였다.

2) 일기법 조사과정

일기법 조사를 위하여 일기장 기록방법, 기초조사에 기록될 사항들이 설명되어 있는 지침서를 준비하고, 3명의 연구보조원들이 사전 교육을 받았다. 연구보조원들은 일기법 연구에 참여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연구 보조원들은 각 세대별로 마련된 일기장 화일과 저울, 세탁물을 담아서 달 수 있는 바구니, 온도계를 연구 참여 주부에게 전달하였다. 처음 방문에서 연구보조원들은 주부들에서 질문하거나, 세탁기의 설명서에 의거하거나, 세탁기와 세탁장소 등을 직접 조사하여서 기초조사 부분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일기부분 기록요령을 설명하고 Part I에서 개발된 설문지를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또한 온도계를 가지고 각 세대의 세탁용수의 경도를 측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1995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30일 동안 세탁일기를 제공된 일기장에 기록하였으며, 연구보조원들은 첫 방문 후 약 일주일이 경과된 후 전화로 애로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일기를 성실히 기록하도록 격려했다. 30일이 지난 후 일기장은 회수되었고, 소형분쇄기를 담뿍품으로 증명하였다.

3) 표 집

일기법 조사에 참여한 가정주부는 35 명으로, 참여한 주부들은 연령별로는 30 대가 58.8%로 가장 많고, 20 대 17.7%, 40 대와 50 대가 각각 11.8%였다. 중졸 이하의 학력 주부는 8.8%, 고졸 학력 주부는 29.4%,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자가 61.8%였다. 취업주부는 23.5%였으며, 가계 월 수입은 150 만원 미만 이 41.2%, 150~210 만원이 20.6%, 210~300 만원이 32.3%, 300 만원 이상이 5.9%였다.

사용하는 세탁기의 용량은 5 kg 미만이 20.0%, 5~7 kg 이 45.7%, 7~9 kg 이 22.9%, 9 kg 이상이 11.4%였다. 17%(6 대)가 수입세탁기였으며, 이 중 3가구의 세탁기가 드럼식 세탁기였다.

IV. 연구 결과

1. 설문지법

설문지는 세탁에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의 선행 연구에서 다루

<표 1> 세탁기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세탁기 특성에 대한 중요도, 차별성, 구매결정 지수 평균값*

세탁기 특성	중요도 ^a	차별성 ^b	구매결정 지수 ^c
가 격	3.98(8)	3.65(1)	14.52(1)
세탁력	4.81(1)	2.85(7)	13.64(5)
기능의 다양성	3.78(9)	2.79(9)	10.44(10)
디자인	3.40(10)	3.06(3)	10.52(9)
용 량	4.10(7)	2.63(10)	10.70(8)
소음/진동	4.56(5)	2.93(5)	13.43(6)
영킴 방지	4.57(4)	3.15(2)	14.36(2)
섬유의 손상 여부	4.69(2)	2.93(5)	13.78(3)
애프터 서비스	4.69(2)	2.95(4)	13.76(4)
전력 소비	4.30(6)	2.85(7)	12.37(7)

* () 안의 숫자는 순위

a 중요도 : 1=전혀 중요치 않음, 2=별로 중요치 않음, 3=보통, 4=조금 중요, 5=아주 중요

b 차별성 : 1=전혀 차이가 없다, 2=별 차이가 없다, 3=조금 차이가 난다, 4=꽤 차이가 난다, 5=매우 차이가 난다.

c 구매결정지수 : 각 응답자의 (중요도×차별성)을 평균한 값. 값이 클수록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어지지 않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표 1>에서 보면 세탁기를 구매하는데 각 세탁기의 특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응답자에게 물었을 때 세탁력이 가장 중요한 것(4.81/5.00)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은 디자인(3.40/5.00)이었다. 세탁력 다음으로는 섬유손상여부, 애프터서비스, 영킴방지, 소음진동 등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이들 특성에 관하여 시장에 나와 있는 세탁기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차별성에 관하여서도 응답하였다. 세탁기들의 차별성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세탁기들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탁기 특성 중 가장 차별화가 되는 것은 가격(3.65/5.00)이었고, 가장 차별화가 되지 않은 특성은 용량(2.63/5.00)이었다. 용량인 경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가격 이외에는 영킴방지와 디자인에서 세탁기들이 조금 차이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나머지 특성들에서는 차별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결정 지수를 보면 가격과 영킴방지가 구매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킴방지가 구매 결정에 영향이 큰 것은 대부분의 국산세탁기가 와류식으로 세탁물이 쉽게 엉키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 것은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격과 영킴방지 다음으로 섬유손상여부, 애프터서비스, 세탁력, 소음/진동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며, 기능의 다양성, 디자인, 용량은 구매 결정에 가장 작은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특성들에 있어서 현재 나와 있는 세탁기들과 아주 다르게 개발하지 않는 한, 즉 현재의 상태에서 가격과 영킴방지의 두 특성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어필하는 세탁기를 제공하는 것이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비자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2>, 소비자들은 대체로 보통 정도로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특성별로는 기능의 다양성, 디자인, 용량, 애프터서비스, 세탁력, 사용의 편의성 등에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가격, 전력소비, 내구성, 행움정도, 세탁물 넣고 꺼내기, 세탁시간 등에는 그보다 만족도가 낮으며 가장 만족하지 못한(불만족한) 특성은 영킴 방지인 것을 나타냈다. 또한 소음/진동과 섬유손상, 구김정도에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되어서, 이 특성들의 개선이 요

<표 2> 세탁기 특성에 대한 만족도 평균 값

세탁기 특성	만족도 ^a
가 격	3.01
세탁력	3.11
기능의 다양성	3.22
디자인	3.23
용량	3.23
소음/진동	2.54
영킵 방지	2.17
섬유의 손상 여부	2.78
애프터 서비스	3.22
전력 소비	3.02
구김	2.42
내구성	2.90
행균 정도	2.86
세탁물 넣고 꺼내기	2.80
사용의 편의성	3.10
세탁 시간	2.90
전반적인 만족도	3.10

a 1=아주 불만족, 2=조금 불만족, 3=보통, 4=조금 만족, 5=아주 만족

구된다고 하겠다.

응답자들이 불만족한 사항을 직접 기입한 응답을 내용분석한 결과도 표에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소음/진동과 영킵/섬유손상이 가장 많이 언급된 불만족 사항이었으며, 세탁력/행균, 용량에 대한 불만족이 훨씬 적은 빈도지만 언급되었다.

세탁기의 기능유무와 기능별 사용빈도를 <표 3>에서 살펴보면, 보유하고 있는 세탁기중 수위 조절은 거의 대부분 가능하고 또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조절기능, 세탁물량측정, 행균횟수 선택 기능도 자주 사용하는 편이었다. 자동조절기능이나 세탁물량측정이 세탁기에 의존한 세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위조절이나 행균횟수 선택이 소비자가 가장 자주 변경 사용하는 기능임을 알 수 있다. 이외의 다른 기능들은 사용정도가 낮았고, 가장 사용빈도가 낮은 것은 예약세탁, 삶은 세탁, 울니트 세탁, 담요세탁 등이었다.

세제 투입 방법과 세탁과 행균정도에 관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세제를 투입하는 방법은 급수-세제-세탁물, 세탁물-세제-급수, 세탁물-급수-세제인 경우가 비슷하게 가장 많았다. 급수-세제-세탁물의 투

<표 3> 세탁기 기능 사용 현황

기능	기능 유무		사용정도 (평균값) ^a
	유(%)	무(%)	
수위 조절	95.3	4.9	4.14
온도 조절	66.9	33.1	2.98
자동조절기능 (퍼지기능)	74.1	25.9	4.03
강력 세탁	74.4	25.6	3.00
담요 세탁	72.4	27.6	2.67
울니트 세탁	70.9	29.1	2.46
불릴 세탁	60.4	39.6	2.93
예약 세탁	60.8	39.2	2.31
삶음 세탁	17.5	82.5	2.39
세제 용해	60.5	39.5	3.20
세제량 측정	47.6	52.4	2.86
세탁물량측정	73.3	26.7	3.93
행균횟수선택	84.9	15.1	3.99

a 사용정도 : 기능이 있는 경우 사용빈도

1=전혀 안 사용, 2=거의 안 사용, 3=가끔 사용, 4=자주 사용, 5=늘 사용

<표 4> 세제 투입 방법과 세탁·행균 정도

질문	항목	응답(%)
세제투입방법	급수-세제-세탁물	29.1
	세탁물-세제-급수	27.3
	세탁물-급수-세제	26.8
	급수-세탁물-세제	9.4
	세제-급수-세탁물	4.6
	세제-세탁물-급수	2.8
세탁횟수	전자동 코스(1회)	58.1
	횟수/시간 더함	41.9
추가행균 방법 및 회수	전자동 코스 대로	47.0
	세제 없이 전 코스 반복	22.4
	1회 추가	10.5
	2회 추가	7.0
	3회 추가	3.1
	4회 이상 추가	1.8
	행균코스만 추가	30.6
	1회 추가	12.0
	2회 추가	9.3
	3회 추가	5.7
4회 추가	1.8	
5회 이상 추가	1.8	

입방법이 세제의 용해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세탁물-세제-급수, 세탁물-급수-세제의 방법은 세제가 균일하게 용해되지 않고 세탁물에 끼여 있거나 세제가 물위로 떠 있어서 세제 농도 낮아지고, 세제가 잔류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차옥선과 이일심(1994)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냉수로 세탁하고(44.2%), 냉수로 행구는 경우(75.1%)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세제투입방법에 따라서 세탁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세탁횟수는 전자동 코스에 따라 1회 세탁하는 경우가 58.1%, 횟수를 더하거나 시간을 더하는 경우가 41.9%로, 추가 세탁의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기존 세탁기 코스에서의 세탁효과와 추가세탁 후의 세탁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행굼의 경우에는 세탁기의 코스대로 행굼을 한다는 경우(47.0%)보다 행굼을 추가하는 경우가(53.0%) 더 많았다.

추가 행굼을 하는 경우 세제 없이 전 코스 반복하는 경우가 22.2%, 행굼코스만 추가하는 경우가 30.8%였다. 전 코스를 1회 더 반복한다는 응답자가 10.6%였고, 2회 이상 추가하는 응답자가 11.9%였는데, 세탁 코스를 반복할 경우 특히 섬유 손상이 문제될 것으로 추측된다. 행굼코스만 추가하는 경우 1회 추가가 12.1%, 2회 추가가 9.3%, 3회 이상 추가가 9.3%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행굼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소비자들이 세제 잔류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세탁과 행굼을 대부분 냉수에서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세제잔류가 세탁기 사용에 따른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험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소비자의 세탁지식을 측정된 결과 5문항 모두를 옳게 답한 경우가 10.1%, 모두 틀린 경우가 1.5%였고, 이것을 각 문항을 20점으로 계산하여 평균점수를 구하면 57.7점으로 세탁에 관한 지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배순화와 이민식(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각 문항과 정답, 정답률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2. 일기법

<표 6>에는 가족수에 따른 30일간의 세탁횟수와 세탁무게가 나타나 있다. 먼저 세탁횟수를 살펴보면 가족수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부부가

<표 5> 세탁지식 문항의 정답률

문항	정답	정답률
(1) 세제를 많이 넣을수록 세탁 효과가 좋다.	×	90.3%
(2) 모든 섬유는 세탁온도가 높을수록 세탁이 잘된다.	×	79.3%
(3) 행굼때 물의 온도가 세탁 때보다 높아야 행굼효과가 좋다.	○	55.4%
(4) 세탁의 엉킴은 세탁효과와 섬유손상에 큰 영향을 준다.	○	88.7%
(5) 다음 취급표시 기호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약 40°C</div>	④ 반드시 중성세제로 약하게 세탁하여야 한다.	47.0%

<표 6> 가족수에 따른 세탁횟수 및 세탁무게의 분포

	가족수			
	2인	3인	4인	5인 이상
세탁횟수 ^a				
5~9회	3	2	3	2
10~14회	1	2	3	3
15~19회	0	1	2	1
20~24회	0	1	1	1
25~29회	0	0	1	0
30회 이상	0	2	3	3
(평균횟수)	8.3	18.0	18.9	21.4
세탁물의 무게 ^b				
0.0~0.9 kg	1(3.0) ^c	4(2.4)	9(3.8)	2(1.0)
1.0~1.9 kg	16(48.5)	72(43.9)	60(25.4)	40(20.4)
2.0~2.9 kg	9(27.3)	46(28.0)	101(42.8)	63(32.1)
3.0~3.9 kg	5(15.2)	32(19.5)	44(18.6)	45(23.0)
4.0~4.9 kg	2(6.1)	10(6.1)	20(8.5)	41(20.9)
5.0 kg 이상	0	0	2(0.8)	5(2.6)
(평균무게)	2.28	2.34	2.66	2.78

a 30일간의 세탁 횟수에 따른 가구수

b 세탁무게에 따른 세탁 횟수

c 백분율

시는 2인 가족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세대에 비해 세탁 횟수가 현저히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2인 가족은 대부분 30일 동안 5~9회 세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외로 세탁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인 이상의 가족은 평균 세탁횟수가 나타내듯이, 이틀에 한 번 이상(15회 이상) 세탁하는 세대가 그렇지 않은 세대보다 많았고 특히 매일 세탁하는(30회 이상) 가구도 8세대나 있었다. 일기기록을 살펴보면 규칙적으로 세탁을 한다기 보다는 보통 세탁물이 어느 정도 모이면 주부들이 세탁해야 한다고 인지해서 세탁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세탁물의 무게는 가족수에 따라 증가하는데, 2인 가족인 경우 평균 세탁무게는 2.28 kg이지만, 세탁물 무게가 1.0~1.9 kg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0~2.9 kg의 세탁물인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3인 가족인 경우도 2인 가족의 세탁물 무게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2 kg대와 3 kg대의 세탁경우가 2인 가족에 비해 약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인 가족과 3인 가족이 세탁무게에 있어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면, 4인 가족과 5인 이상 가족이 또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서 두 가족 모두 2 kg대의 세탁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5인 이상 가족인 경우 4인 가족보다 3 kg 이상의 세탁물을 세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46.5%에 달하였다. 2인 가족과 3인 가족은 많은 경우 1 kg대의 세탁물을 세탁하였고, 4인 이상의 가족에서는 2 kg대의 세탁물이 가장 많았으며, 5인 이상 가족인 경우는 2 kg대의 세탁이 4인 가족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으나 3 kg 이상의 세탁물이 다른 가족들보다 뚜렷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세탁횟수와 세탁무게를 종합하여 보면 가족 구성이 세탁횟수와 세탁무게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성인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2인 가족인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탁을 하며 세탁 무게도 1 kg대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있는 3인 가족부터는 세탁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세탁횟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서 세탁무게는 2인 가족과 3인 가족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그것은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옷의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3인 가족에 비하여 4인 가족, 5인 가족은 세탁횟수의 증가보다는 세탁무게의 증가, 즉 세탁의 양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가족수의 증가에 따라 가족들의 옷의 무게가 증가했다고 생각할 수

<표 7> 고정기능 변화율에 따른 분포(가구수)

변화율	수	위	세탁코스	온도조절
0(변화없음)	11		28	27
0.00~0.20	6		5	3
0.21~0.40	6		1	1
0.41~0.60	6		1	2
0.61~0.80	3		0	0
0.81~1.00	3		0	0

있는데 실제로 무거운 빨래는 잘못 특히 청바지인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에 비해서, 보통 무거운 빨래의 주종으로 생각되는 이불빨래는 2 kg 내외였으며, 담요를 빠는 경우는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주로 고정해 놓고 쓰는 기능 중 세탁할 때 변경하는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표 7>, 수위조절은 11가구가, 세탁코스는 28가구, 온도조절은 27가구가 전혀 변경하지 않은 채 한가지 고정된 선택으로 세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능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그 중에서도 수위조절은 가장 다양하게 사용하는 편이고, 세탁코스는 변경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수위조절이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 설문지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수위수준의 사용율을 보면 <표 8>, 고수위를 늘 사용하는 가정이 9가구였으며 중수위를 늘 사용하는 가정도 2가족 있었다. 고수위나 중수위를 늘 사용하는 가정에서 세탁기 용량이나 세탁물의 양에 어떤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들 가정은 고수위 또는 중수위를 늘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표 8> 수위 수준의 사용율에 따른 분포(가구수)

수위 사용율	수위				
	고	중	저	소	최소
1.00	9	2	0	0	0
0.80~0.99	4	3	0	0	0
0.60~0.78	3	1	3	0	0
0.40~0.59	2	5	2	0	0
0.20~0.39	6	6	4	4	0
0.01~0.19	8	7	5	1	3
0.00	3	11	21	30	32

습관적으로 고수위 또는 중수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수위를 조절하는 경우 세탁기 용량에 상관없이 대부분 세탁물의 무게가 3kg 이상인 경우에는 고수위를 2kg 대에서는 중수위, 1~2kg 대에서는 저수위를 사용하고 소 또는 최소는 그 이하의 세탁 물량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표 9>에는 세탁코스 사용률이 나타나 있는데, 거의 대부분 표준세탁으로 선택되어 세탁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울코스가 가끔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표준세탁코스에 비하여 다른 세탁 코스의 사용은 미미하여서 다양한 코스는 소비자에게 큰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선택한 세탁수온의 사용률이 <표 10>에 나타나 있다. 드럼식 세탁기의 경우는 세탁 온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데 본 연구의 참여 가정은 모두 35℃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이들을 온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세탁수온은 변경되기보다는 늘 같은 수온 선택으로 세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세탁코스 사용률에 따른 분포(가구수)

세탁코스 사용률	세탁코스				
	표준	울코스	담요	스피드	기타
1.00	28	0	0	0	0
0.80~0.99	5	0	0	0	0
0.60~0.79	1	0	0	0	0
0.40~0.59	1	1	0	0	0
0.20~0.39	0	0	0	0	0
0.01~0.19	0	5	1	1	1
0.00	0	30	34	34	34

<표 10> 세탁 수온 설정 사용률에 따른 분포(가구수)

수온 사용률	수온		
	온 수	미온수	냉 수
1.00	4	5	18
0.80~0.99	0	5	0
0.60~0.79	1	0	0
0.40~0.59	0	2	1
0.20~0.39	0	1	1
0.01~0.19	4	0	2
0.00	26	22	13

늘 냉수로 세탁하는 경우가 18가정, 미온수는 5가정, 온수는 4가정이 있었다. 이것은 총 35가정 중 27가정이 한 가지의 세탁온도 선택에 의해서 세탁한다는 것을 말한다. 세탁액의 온도를 <표 11>에서 보면 15~20℃의 분포가 가장 많았지만, 외부기온과 세탁기의 위치에 따라 세탁액의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온수, 미온수라 하더라도 실제 온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세탁액 온도의 광범위한 분포는 소비자가 세탁액의 온도에 알맞게 세제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온도에 민감하지 않는 세제가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도 세탁수온을 선택할 때, 냉수, 온수 등의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외부기온에 따라 세탁기에 공급되는 물의 온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수온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표 11> 세탁액의 온도에 따른 분포

온 도(℃)	가구수(백분율)
0~10	2(6.1)
10~15	4(12.1)
15~20	12(36.4)
20~25	2(6.1)
25~30	5(15.2)
30~35	2(6.1)
35~40	3(9.1)
40 이상	3(9.1)

<표 12> 추가세탁, 추가헹굼, 추가탈수 사용률에 따른 분포

사 용 율	추가세탁	추가헹굼	추가탈수
1.00	6	13	3
0.80~0.99	1	10	2
0.60~0.79	4	1	1
0.40~0.59	0	1	0
0.20~0.39	2	2	0
0.01~0.19	4	1	3
0.00	19	7	26
평균횟수			
2 회 이상	2	9	3
1.1~1.9 회	2	6	0
1 회	12	13	6

<표 12>은 추가세탁, 추가헹굼, 추가탈수를 사용하는 비율과 평균횟수를 나타내고 있다. 추가세탁을 늘 하는 가정이 6가정이고 전혀 하지 않는 가족이 19가정이었다. 추가세탁을 하는 경우에는 1회 추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평균 2회 이상 추가세탁하는 가정이 두 경우 있었다. 추가헹굼은 7가정을 제외한 모든 가정이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 13가정은 늘 추가 헹굼을 하고 있었고, 평균 1회 추가 헹굼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회 이상 추가헹굼을 하는 경우도 9가정이나 있었다. 추가헹굼은 설문지의 결과에서 보다 더 많은 가정이 추가헹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추가헹굼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탈수인 경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26가정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늘 추가탈수를 하는 가정도 세 경우 있었다. 추가 탈수의 평균횟수는 1회가 가장 많았고 세 가정은 2회 이상 탈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탈수인 경우 흥미로운 것은 적은 수이나 자주 사용하는 고사용자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저사용자로 양분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추가 탈수가 선택사항이 되어서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 선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설문지 응답과 일기법 결과의 일치정도를 <표 13>에 나타내었다. 사용하고 있는 세제종류와 세제

계량방법에서는 상당한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세제와 농축세제의 명확한 구별이 없이 사용하며 계량방법에도 큰 주의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근래에 다양한 상표의 세제가 판매되고 있으며 이들 광고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특정한 상표나 종류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세제에 따라 계량법이 달라지거나 양이 달라지기보다는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양을 투입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세제종류나 세제계량방법에 비하여 세제투입방법은 일치도가 높은 편인데, 이것은 주로 한가지 방식으로 세제를 투입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세탁빈도에서는 8가정이 불일치, 27가정이 일치하였다. 분리세탁은 그 정도에 따른 것이고 일치와 불일치를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색상, 외의 정도로 분리한 것도 분리세탁으로 간주하였을 때 일치하는 가정이 30가정 불일치하는 경우가 5가정이었다. 분리세탁 방법은 주로 속옷과 겉옷으로 분리하여 세탁하며 어린이 특히 갓난아이의 옷은 따로 분리세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색상, 섬유종류, 재질에 따른 엄격한 분리 세탁은 없었는데 그것은 세탁횟수가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세밀한 분리세탁을 할 정도로 세탁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추가세탁은 불일치하는 경우가 11경우가 있었으나 추가 헹굼인 경우에는 3가정만 불일치하였다. 기능사용정도를 설문지로 응답한 것과 일기법으로 나타난 것을 비교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이 늘 또는 자주 사용한다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수위조절, 코스선택, 온도조절, 불림과 같은 기능에서는 불일치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삶기, 세제용해, 세탁물 측정의 기능에서는 일치하는 경우보다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지식정도가 낮고 할 수 있는 세제에 관한 사항, 잘 쓰지 않는 기능 또 규칙적인 패턴이 없는 세탁빈도와 추가세탁에서는 불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제 투입방법, 분리세탁 여부, 추가헹굼과 같이 고정적인 유형이 있는 세탁방법과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일기법과 설문지법의 일치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일기법이 설문지법에 비하여 노력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연구방법인 점을 감안할 때, 연구하는 내용에 따라 설문지법이 일기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13> 설문지 응답과 일기법 결과와의 일치정도 (가구수)

	일 치	불일치
세 제 종 류	24	11
세제계량방법	20	15
세제투입방법	31	4
세탁빈도	27	8
분리세탁여부	30	5
추 가 세 탁	24	11
추 가 헹 굼	32	3
기능사용*		
수 위 조 절	23	0
코 스 선 택	7	0
온 도 조 절	7	1
삶 기	0	1
세 제 용 해	1	4
세탁물측정	0	4
불 림	4	1

* 늘 또는 자주 사용하는 경우만 포함

그러나 설문지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항들, 예를 들어 세탁물의 무게, 세탁온도, 기능선택 사항의 사용률 등은 일기법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세탁기가 있는 위치는 다용도실 23가정, 욕실이 8가정, 베란다 3가정, 부엌이 1가정이었다. 세탁기가 놓인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경우(17가정), 바퀴나 높이조절장치로 조절하거나 나무조각이나 고무판 등을 대거나, 그대로 경사지에 설치한 경우도 2가정이나 있어서 세탁기의 소음, 수명단축이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세탁기가 가장 많이 설치된 다용도실의 입구를 측정한 결과 입구넓이가 1.33m부터 3.08m까지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 최빈도 넓이는 1.80m와 1.68m였다. 그러나 1.33m부터 1.37m 사이도 5경우가 있어서 다용도실 입구의 설계가 규격화되지 않는 한, 현재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대형세탁기의 경우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V. 요약 및 결론

설문지 법과 일기법에 의거하여 세탁기 구매상황과 세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구매시 가장 중요한 세탁기 특성은 세탁력과 섬유손상여부 등이었으나, 구매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격과 영킹방지로 나타났다.

(2) 소비자들은 세탁기에 대해 대체로 보통정도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영킹은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였다.

(3) 세제투입방법은 급수-세제-세탁물, 세탁물-세제-급수, 세탁물-급수-세제인 경우가 비슷하게 가장 많았다.

(4) 가족수에 따라 세탁 횟수와 세탁 무게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증가의 폭은 가족 구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즉, 2인 가족은 작은 무게(1kg 대)의 빨래를 대체로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3인 가족인 경우 세탁 횟수는 2인 가족인 경우보다 크게 증가하나, 세탁무게의 증가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그에 비해 4인과 5인 가족인 경우에는 세탁횟수도 증가하고 세탁물의 무게도 크게 증가한다.

(5) 세탁기 기능 중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은 수위조절이었고, 세탁코스와 온도조절은 훨씬 사용하는 빈도가 적었다. 세탁기 수위는 주로 고수위를 사용하였으

며, 수위는 세탁무게에 따라 조정하기 보다는 습관적으로 정해 놓은 수위에서 세탁을 하였다. 표준코스와 냉수세탁-냉수헹굼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세탁코사인 경우는 표준코스 이외의 코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6) 세탁액의 온도는 15~20°C의 분포가 가장 많았지만, 외부 기온과 세탁기의 위치, 종류에 따라 2.7~45.0°C 까지 큰 차이를 나타냈다.

(7) 추가 세탁은 19가정을 제외한 16가정이, 추가헹굼은 7가정을 제외한 28가정이 늘 또는 가끔하고 있었다. 추가 탈수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26가정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늘 추가탈수를 하는 고사용자도 나타났다.

(8) 설문지 응답과 일기법 결과를 비교해 보면, 세제에 관한 사항, 잘 쓰지 않는 기능 또 규칙적이지 않은 세탁빈도 등에서는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세제투입방법, 추가헹굼,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일치정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탁기 개발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확대시킬 수 있는 후속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35명에 그친 일기법 대상을 넓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 실정에 맞추어 여러 시점에서 세탁실태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구매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 회사 이미지, 점포 및 정보원 선택에 대한 다차원적 연구가 요구되며, 소비자들의 생활 양식 등과 세탁 실태와의 연관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운석(1995). 국내의류용 세제의 최근 동향. 한국의류학회지, 19(1), 161-169.
- 권수애(1980). 가정의 세탁기활용률 중심으로 한 세탁관리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선희(1995). 세탁행위를 중심으로 본 소형다세대 주택의 현장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병미(1984). 주부들의 세제에 대한 인지도 및 사용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 121-129.
- 김성련(1992). 세제 - 현황과 문제점 -. 제16회 한국의류학회 학술발표회, 5-18.
- 동아일보(1995. 4. 9). 엔코진정 요약했다. 5면.

- 박우성(1990). 가사노동의 합리화를 위한 Home Laundry System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 배순화, 이미식(1994). 섬유제품의 취급방법과 관련된 레이블에 대한 연구—소비자 인식 및 세탁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4), 480-489.
- 오성진(1993). 우리나라 가전시장의 세탁기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 이정우, 최동숙(1983). 도시가정의 세탁관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21(3), 87-96.
- 조경아(1993). 가사노동의 대체도구로써 한국형 가전제품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차옥선, 이일심(1994). 일반가정의 세탁습관 및 반복세탁에 의한 배색 면 내의의 잔류 오염. 한국의류학회지, 18(4), 549-559.
- 최미선(1994). 소비자 행동과 제품의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Myers, J.H. & Alpert, M.I. (1968). Determinant buying attitudes: meaning and measurement. *Journal of Marketing*, 32, 13-20.
- Park, M., Yu, H. & Park, M. (1995). Exploring product use behavior of Korean urban families. *Proceedings of Asian Consumer and Family Economics Association*, 292-303.